

남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조례 12건 가결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안전심사료 운영위원회는 폐회기간 중 지난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20일과 2월 22일, 2일간의 회의를 통해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의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의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날 김철현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많이 선물해주세요’, 박구슬 의원은 ‘주차장 무료개방 조례제정 촉구 제안’, 박미순 의원은 ‘교육비 지원’ 우리 남구도 나서야 할 때’, 강건우 의원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의 증가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처우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노인 등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 비속)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행정안전부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에 따라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원의 청가 허가 처리 및 청가 결과 통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통보에 따라 증언의 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자문단」(현 부산광역시 남구 미래혁신 정책자문단) 구성 후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 발전연구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통장 고령화와 자격 기준 미달 등으로 고등학생 통장자녀 장학금 수령자가 감소하고 있어 통장자녀의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대상 및 장학금 지급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여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부산광역시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게 청구한 대행사업비의 경우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더 나은 남구’ 위한 의원 조례발의 활발



허미향 의원



박미순 의원



이병준 의원



김철현 의원



김근우 의원



유명희 의원

허미향 의원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박미순 의원 1인 가구 고독사 대책

이병준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김철현 의원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김근우 의원 지하 안전관리 마련

유명희 의원 저소득노인 등 건강보험료 지원

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노인 등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본 안건들은 지난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아이들 놀이터 더 많이 조성



김철현 의원
(용량, 갈만1~2, 우음)

본의원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여야 할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놀이터를 선별해 주고 싶은 열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책은 1920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달동네인 산호세 아이들은 차와 사람들이 어지럽게 뒤얽힌 위험한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거주장소처럼 길거리에서 논다고 어른들에게 매일 꾸지람을 듣지만 아이들에게는 마음 놓고 뛰어 놀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시장님을 찾아가 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며 그림책 속 아이들과 남구의 아이들이 너무 닮아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구만 살펴 보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으며 아이 대다수의 지역도 저희 지역구와 비슷한 실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안되는 놀이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플라스틱 재질의 정형화된 형태여서 아이들이 전혀 흥미로워 하지 않습니다. 또 놀이터에 가려고 해도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없어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고 큰 도로와 달리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은 아이들에게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곳곳에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놀이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재범 구청장님께 아이들이 행복한 남구를 위한 몇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놀이터는 나이, 성별,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통합 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줄 수 있는 놀이터로 나가야 할 가치인 ‘장애, 비장애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흙과 물, 나무, 동식물과 같은 가용하지 않은 다양한 자연 소재들을 활용해 놀이와 체험학습,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잘게어 직접 반영하여 영동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가장 행복한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와서, 시장님을 만나고 카라카스 아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매우 안타깝지만 결론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우리 남구는 카라카스와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0년을 앞둔 대한민국 남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구슬 의원
(대연1·4·6)

2018년 12월 남구청과 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장 개방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주차장 52면역을 지역주민에게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은 24시간 무료 개방합니다. 이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최초로, 당시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었으나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의 받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주말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도심의 주거지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의 대안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공유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장 무료개방 조례 제정을

의 야간 개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게 청구한 대행사업비의 경우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무로개방 주차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 긴 설득과 그에 상응하는 보안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료개방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무로개방 주차장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계획’이라는 이름하여 무료주차장 관련 예산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구의 집행실적은 매우 미흡합니다. 2천만원이라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실제 활용할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구청 차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음으로써 남구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과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의 선의로만 공공기관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개방주차장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및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 보조금지원의 범위, 장기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와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학교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의 공유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설, 추석 연휴 및 공휴일과 방학 등 학교의 업무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 공유를 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조례 제정으로 주차공간 공유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교복비 지원 남구도 나서야 할 때



박미순 의원
(용호1)

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대화꽃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어려운 시기이며, 학부모님들도 등록금, 교복 구입비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무상지원 등 교육부담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몇 년 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1인당 30만원씩 209명에게 교복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의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으로 대부분 여러 번 구입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교복비가 큰 부담인 실정입니다.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부산에서는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중구 4곳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다 보니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선 상대적 박탈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의지만 있다면 교복비 일부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에 본 의원은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에 구청장님과 집행부과 과감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동,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실업수당 도입 등 수혜자 범위와 규

모도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 남구도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도정보 등 지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차순위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협의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도 고교생 교복지원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십만원의 교복비 무상지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남구민들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로 세습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커다란 외침이 아닌 작지만 실존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건우 의원
(용호2·3·4)

오늘 본 의원은 부지확보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조성을 비롯해 수영장, 공원, 도서관, 경로당, 노인건강센터, 치매예방센터 조성 등 모두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런 각종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먼저 탐색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에 적합한 위치·면적등을 충족하는 공공유지를 찾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인정부가 들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부지 확보 대책 필요

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생활 SOC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강서에 예코델타지역 같은 최첨단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남구에서는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지 확보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적합한 공공유지를 찾기 못해 개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지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매입금액이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구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부분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보상금액을 높이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한민국 토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 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토지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집행부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주민복합센터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재활치료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육아종합육성센터가 들어서길 바라고,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매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남구 전체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들이 늘어나 남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가 창출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남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쳐겠습니다.